

영적원리 XIX.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찾는다.

1. 성숙함과 미성숙함

성경은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고 밝힌다. [히브리서 5:12-6:3]

(1) 미성숙한 신앙

[히브리서 5:12-13]

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ㄱ.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 12절 ‘때가 오래되었음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한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때가 오래되었다면 당연히 ‘선생’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이란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보면 ‘원리’를 알고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앙이 초보 수준에 멈추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

a) 한 마디로 ‘어린 아이’라 말한다. 어린아이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 연약한 소화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드러운 젖을 먹고있는 사람이다.

b) ‘부드러운 젖’은 무엇인가? ‘올바른 가르침’을 말한다. (13절)

-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unski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이다.

c)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KJV에 보니 ‘Unskil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삶에 제대로 적용 되어있지 않음을 말한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영적원리, 영적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시키는 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늘의 영적원리를 이 땅에서 적용하며 사는 삶이다. 처음에는 충돌이 없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지만, 신앙이 깊어 질수록 이 땅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하늘의 영적원리를 이 땅에 적용할 수 없는 단계의 미약한 어린아이 신앙이 된다. (초보적 원리) 성경은 죄로 오염된 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원리’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 - 인본주의적 신앙

[창세기 6:1-3]

1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다."

ㄱ. 늘어나는 사람들 (번성) 1절 -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문제는 무엇으로 번성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땅에 번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한 인간의 번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된 인간의 번성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ㄴ. 인본주의적 번성 - 인간이 기준이 됨

규칙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점이 없는 번성은 인간의 번성이다. '인간' 이 기준이 된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창세기 6:3]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생령' 이다. 영적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몸의 '육체'이며, 그 기한은 백이십 년이다.

기준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사상, 이념, 철학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을 주장한 인간이 죽었기 때문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다.

ㄷ. 인본주의란, 땅의 주인이 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관한 것이다.

노아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죄인된 인간 중심으로 번성해서,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가?

[창세기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a)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인간의 행복한 삶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사람의 딸이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치의 산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b)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무법천지가 되었고, 모든 기준이 무너진 '정글' 이 되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기준 - 방주 (교회)

하나님의 대안은 홍수로 죄로 변질된 땅을 심판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 하셨다.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 을 의미한다. 이전의 땅과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창조된 땅을 말한다. 땅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토양이 새롭게 된 상태이다.

신앙으로 말하면 '거듭난 상태' 를 말한다. 이전 것이 지나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의 상태이다.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 일을 위해서 '방주' 를 준비하셨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비롯해 노아의 가족, 그리고 구별된 짐승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이룰 존재들이었다.

오늘날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한다. 죄악된 세상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존중하지만 '인본주의' 는 경계한다.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을 말한다.

(4) 미성숙한 신앙 - 온전하지 않은 자신이 기준이 된 신앙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된 신앙을 말한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런가?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원리가 아직 그 안에서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2. 성숙함의 원리 - 예수님.

(1) 성숙한 신앙이란?

[히브리서 5:14]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who by constant use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NIV)

ㄱ.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이 있는 사람들)

ㄴ.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익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삶 가운데 잘 단련되고 연단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세련된 자세는 말씀에 보니 심 없는 연습과 실행('constant practice')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함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존재를 향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것이다.

(2) 예수님! 장성한 분량의 기준

그렇다면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가? 명확한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 하셨다.

[마가복음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숙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다. 첫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있다. 성숙한 신앙의 세련됨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를 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십자가의 원리를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ㄱ. 자기를 부인하는 삶

모든 문제를 남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다.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인가? 자신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담아두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고통이었다.

그런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 에게 두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다 옳고 남은 불의하고 더럽다고 여겼다. 예수님은 이와같은 사람을 죽은 무덤과 같은 자라고 표현했다. 히브리서 6:1절에도 '죽은행실' 에서 벗어나라고 되어있다. 왜 죽은행실이 되었는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닌 남에게, 환경에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삶

죄인 된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은 모든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십자가 신앙 안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신앙의 뿌리는 '죄'이다. 죄는 영적인 문제이다. 죄는 행위와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이다. 영원에 관한 것이다. 해결은 하나 뿐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 위해서만 온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ㄷ.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경험

이런 사람에게는 '경험' 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영적원리가 터득된 삶을 말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본, 승리의 경험이 쌓여진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의 눈은 언제나 '본질' 과 '비본질' 을 구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를 소진하게 하는 비본질적인 인간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다. 이제 성숙함으로 일어나야 한다. 성숙함의 연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적극적으로 영적인 원리로 이 땅의 원리를 풀어가는 사람임을 명심하자.